

어린이 책꽂이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은 전기. 미켈란젤로의 삶이 이끄는 작품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술사를 이해할 수 있다.



〈맑은 기쁨·9천원〉

▲마주보는 세계사교실(제6권)=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쳐 세계 역사를 주도한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제6권 '석탄과 기계가 세계를 지배하다' 편에서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미국의 제국주의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윤진주니어·1만원〉

▲한·중·일 얽히고 설킨 역사이야기=명나라에 잘못 전해진 조선왕조 족보사건의 진실은? 한국, 중국에서만 과거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 등 한·중·일의 얽히고 설킨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계림북스·1만1천원〉

▲프라다칼로의 파란집=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여류화가 프라다 칼로의 삶과 창작열을 환상소설로 그려냈다. 교통사고와 남편과의 불화 등은 갖 역경을 딛고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파란자전거·9천800원〉

▲책읽는 허수아비=책은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인공 소년은 허수아비 피트와 토론크를 벌이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피터팬 등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고전들이 들어있다.



〈예꿈·8천500원〉

가난한 자의 어머니 '아름다운 고백'

마더 테레사... 브라이언 콜로디치 지음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 영혼은 너무 많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신앙도, 사랑도, 열정도 없습니다. 영혼도 저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천국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느님에게 계속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1957년 마더 테레사가 페리에 대주교에 보낸 편지 중)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자 성녀 마더 테레사. 그녀의 서거 10년을 맞아 그녀가 남긴 편지들을 모아 엮은 책 '마더 테레사-나의 빛이 되어라'가 완역되어 나왔다.



그녀는 이러한 고백을 '영혼의 어둔 밤'이라 표현했다. 모범적이고 신비한 종교인의 모습 뒤에 감춰진 강렬한 믿음의 시련, 영적 고난 속에서 때론 절망했던 타인과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마더 테레사의 숨겨진 고통은 읽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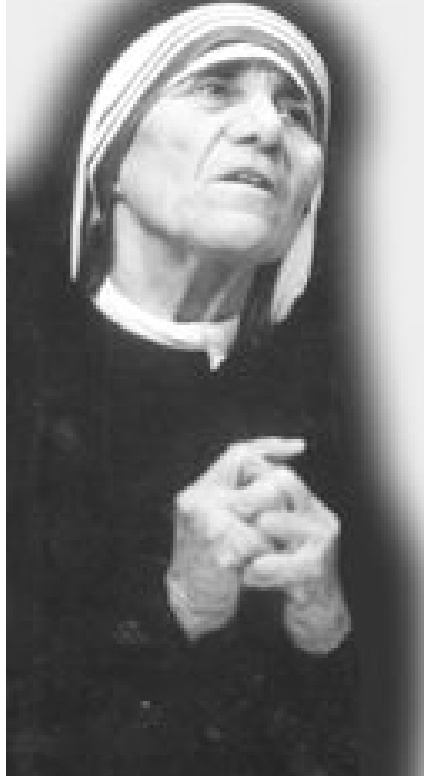
브라이언 콜로디치 신부는 이와 관련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일 뿐'이라고 기도했다며 기독교인이자면 누구나 겪는 '신앙속의 어둠(darkness within faith)'을 평생 견고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궁극적 구원(perserverance)을 이뤘다"고 쓰고 있다.

책은 또 충격적일 정도로 현대 성녀의 진정한 내적 삶을 추적하고 있다.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선교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녀가 기뻐했는지, 또 그녀의 사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언의 답을 준다.

"만일 제가 성녀가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녀일 것입니다. 언제나 어둠에 빛을 밝히려 세상에 내려가 있을 테니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1962년 마더 테레사가 예수회 요제프 노이너 신부에게 보낸 편지 중)

마더 테레사의 '사명선언'으로 여겨지는 이 글은 그녀의 영적 삶과 더 나아가 전 생애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허마터면 어둠속에 숨겨지고 한층의 재가 될 뻔한 고귀한 편지들은 이제 세상에 나와 빛이 되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오래된미래·1만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인의 '主食' 김치의 모든 것

김치전문서 김만조의 1인 지음



한국인의 주식 '김치'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김치전문서'가 출간됐다.

'자연이 키우고 우주가 담긴 맛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50년 동안 김치를 연구한 김치박사 김만조씨와 '한국인의 의식 구조' 등을 통해 한국인의 뿌리 찾기에 몰두해온 언론인 고 이규태씨가 집필한 책이다.

천년 동안 이어져온 김치의 역사와 문화, 풍속 등을 담고 있는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배추 씨를 심는 일에서부터 발효 과정을 거쳐 김치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김치의 일생을 읽다'이다.

또 '김치는 무엇으로 단련되는가'에서는 배추, 부추 등 김치의 재료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치미 등 80여 종류의 김치 담그는 법을 소개한 '김치로 세계절을 살다'도 눈에 띈다.

〈디자인하우스·1만6천800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지자체 시행 10년, 소외된 지방

지방은 식민지다 강준만 지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발표로 인해 광주·전남을 포함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사회비평가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어도 한국은 여전히 '서울공화국'인 한국사회를 비판하며 '지방은 내부식민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은 식민지다'는 지방자치와 지방문화, 지방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지방이 식민지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내부 식민지를 탈출할 해법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보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시행, 지방 언론사의 공공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저자는 지방의 성찰도 강조했다. 지방이 지방주의를 내세우며 '절규'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고인도 해이러하며 정교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미고원·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이문재 '꽃이 저도 너를 잊은 적 없다'

맞춤형 독서라는 말이 있다. 요긴한 인용문구 하나라도 얻을 양으로 읽어들이고 하는 독서, 요즘 내 독서행태가 꼭 이렇다. 출판 홍수시대에 익사하거나 실종되지 않고 읽을 만한 책을 골라 독서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닐 터.

가을이 뒷모습 보이며 저만치 가고 있는 시간이야 막 독서를 끝낸 책이 '꽃이 저도 너를 잊은 적 없다'이다. 56인 시인의 시편을 이문재 시인이 골라서 엮고 짙짙한 독후감을 곁들인 141쪽 짜리 시집이다.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이 시인이 모 일간지 지면을 빌려 소개한 것으로 그가 밝힌 선정 이유는 이렇다.

"평소 시를 잘 읽지 않는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싶었다. 그리하여 시가 더 이상 '음풍농월'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 한편의 시가 독자들의 삶을 비추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바랐다."

그러면서 교과서나 문학 연구자들이 뽑아놓은 '명시'반열의 작품과도 거리가 있고 너무 무겁거나 어려운 시들, 메시지가 강한 시

'시를 골라 먹는 재미'



들, 너무 많이 알려진 시들은 제외했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편자의 변은 겸사에 불과하다.

좋은 시란 황을 인간을 비추보는 거울의 의미가 다분하고 등불 밝히듯 가슴이나 머리에서 깨달음이 번져오는 작품을 말한다. 좋은 시는 그만큼 삶의 방식과 의미를 바꿔 놓으며,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 책에는 갈피 갈피 접어지며 반복해서 읽고 아예 외워버리겠다 싶은 작품들도 수두룩하다. 좋은 시편들을 골비 두들쳐뿜 별 좋은 자리에 걸여두고 밥맛을 푼구고 싶다는 내 평소의 생각이 이 책속에서 소롯이 쉬 쉬고 있다.

시의 맛은 미주알 고주알 깨달린 길고 긴 이야기 속에 있지 않고 촘촘살인적 생각과 반전을 체험하는데 있다. 요컨대 식상했던 일상성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호기심이 동할만큼 보고 만지면서 얻어낸 자발한 느낌, 이것이 시를 읽은 재미 아닐까.

'꽃이 저도...'에 담긴 시편들은 작고 하찮은 사물적 현상들을 언어화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저마다 간절하고 그리운 세상의 프리즘을 아름답게 빛내준다. 시대와 사회가 경제논리에 밀려 심각한 정서적 노화현상을 겪고 있는 요즘을, 땀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조적인 생각들이 새삼 커진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은 가능하다. 아니 대단하다. 평소 내 자신의 생각이다. 독자가 적다는 시, 그래서 시시하다는 시, 시인은 그래서 시시한 사람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지금처럼 심심하고 힘찰 때가 없었다. 시와 시인에 대해 별의별 말이 오가지만 분명 한 사실은 한국은 시집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성찰과 공감의 자리에는 늘상 시가 등장해 채워져 있다.

시가 빛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순간이며 그 순간은 인간의 영원을 지향한다. 어찌 개울물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또 다른 개울물 소리를 들을 수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꽃이 저도...'에 담긴 시적 에스프레소는 우리네 영혼에 울림을 지어 내고 감동의 언덕까지 출렁이게 한다.

김중(시인)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재, 정육무세원, 11월 1일(주) 아간반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기본이론, 심화이론,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광주고시학원.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개강 11월 3일(주,야). 주부반, 성인반. 새롭 행정고시학원. www.mdgosl.co.kr